

주간 통일정세

2015-40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서울메트로 해킹 부인…“유치한 모략극”(10/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8일 ‘또 하나의 유치한 모략극’이라는 글에서 서울메트로 해킹 사건을 두고 “무슨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무작정 ‘묻지마 북 소행’으로 몰아붙이는 대결모략꾼들의 광대극”이라고 주장함.
 - 매체는 “남조선 당국이 우리에게 대해 ‘사이버 테러’니 뭐니 하고 걸고들었다가 남조선 내부 소행이거나 3국의 행위라는 게 드러나 망신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남조선 정보원은 해킹 사건만 터지면 과학적 수사도 없이 덮어놓고 동족을 걸고들고 있다”고 비난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한적, 국제적십자사 대북사업 지원키로(10/6, 연합뉴스)
 -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각국 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회 간 협력합의 전략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대북사업 지원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하지만 지원 규모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내년 초까지 논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 뉴스는 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남북, 오늘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생사확인 결과 교환(10/5, 연합뉴스)

- 남과 북이 5일 판문점에서 이달 20~26일로 예정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의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회보서 교환은 낮 12시에서 1시 사이로 잠정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힌 내용을 뉴스는 전함.
- 또 대한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회는 오는 8일 판문점에서 최종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100명의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北역류’ 우리국민 주원문씨, 6개월만에 송환돼(10/5,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오후 5시 30분께 북측이 판문점을 통해 주씨를 우리측에 돌려보냈다”고 밝힌 내용을 연합뉴스는 보도함.
- 북측은 5일 오전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 4월 22일 이후 역류해 왔던 주원문씨를 우리 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왔으며 우리 측은 북측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주씨는 약 6시간뒤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고 뉴스는 보도함.

■ 북한 “남한 선박, 북측 어선 충돌 후 도주”…피해보상 요구(10/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지난 1일 1시25분경 동해상에서 북위 39도12분56초, 동경 131도31분26초 지점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함경북도 무역관리국 소속 선박 ‘두루봉3호’를 남조선 선박이 들이받아 선원 5명을 부상시키고 선체를 파손시킨 채 도주하는 망동을 부렸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선박을 들이받은 배의 선체에는 ‘하이니’(HIGHNY)라는 배 이름과 선적항을 표시하는 ‘제주’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 통신은 “남조선 당국자들은 인도주의에 대해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이번에

범죄를 감행하고 도주한 선박과 주모자들을 엄격히 조사하고 해적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하며, 우리 선원들과 선박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응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함.

- **겨레말큰사전 남북 편찬회의 12~19일 금강산서 개최(10/8, 연합뉴스)**
 - 8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 따르면 남측 사업회 관계자들은 오는 12~19일 북측 관계자들과 금강산에서 만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회의’를 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번 회의에는 고은 이사장 등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관계자 30여명과 북측 편찬위원 10여명이 참여하며 남북 편찬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겨레말큰사전 집필 원고 중 2만1천여개 단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뉴스는 전함.
-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남북서 공동전시회 연대(10/8, 연합뉴스)**
 - 통일부가 2007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한 개성 만월대의 출토 유물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남북이 공동으로 전시한다고 8일 밝힌 내용을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번 만월대 유물 남북 공동전시회는 남측 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공동 주최로 서울 전시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되며, 만월대 출토 유물 입체영상, 유적 사진자료, 광복 이전 발굴 만월대 유물 등이 선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개성 전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고려 성균관에서 진행되고 전시 첫날인 15일에는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회의도 열린다고 뉴스는 전함.

- 대통령의 ‘통일외교’ 관련 ‘민족 내부문제인 통일문제에 대해 동족을 제쳐놓고 외세와 그 무슨 논의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외세에 매달려 통일외교를 떠드는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는 북남관계 개선분위기를 또다시 해치고 있다’고 비난(10.6, 중앙통신)

- 韓美 4D작전개념의 구체적 이행방안 모의 등 관련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탐지, 방어, 교란,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북침 선제타격방안’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당국이야말로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도발의 장본인’이라고 비난(10.8, 평양방송)

- 우리 정부의 발언(北 10월 도발 가능성,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 등) 관련 ‘우리(北)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또 하나의 악랄한 반공화국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는 쓸개 빠진 짓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10.9, 중앙통신)
- 이순진 합참의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연평도 포격전은 北의 도발, 北 포격 도발시 원점타격 등)에 대해 “악담질”이라며 ‘어렵게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망발로서 우리(北)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난(10.9, 중앙통신·민주조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김정은, 당 70돌 기념논문 발표...“핵억제력 강화”(10/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김정은 노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 이다’라는 제목으로 1면 전체에 걸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4일 발표한 기념 논문을 소개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논문에서 “우리 식의 위력한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며 전민 항전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함.
 - 그는 “북과 남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10·4 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에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함.
- 북한 “겨울철 등 악조건에도 위성 발사 기술 보유”(10/6,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6일 “(지난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때) 공화국에는 이미 강설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물질적 준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도함.
 - 매체는 “운반 로켓의 2계단(2단)을 국제해상통로와 주민 지대에 떨어지지 않고 공해에 떨어기 위해 자리길(궤적)을 꺾어야 했던 사연”, “위성 밑에 있는 나라들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우정 굴곡을 만들어 선회시킨 자리길”이라고 언급함.

- 북한, 당 창건일 앞두고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 제의(10/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다”고 촉구함.
 - 대변인은 “또다시 조선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으며 그렇게 되는 경우 쉽게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 그는 이어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 방도는 조미(북미)가 하루빨리 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미국-쿠바 관계회복 첫 언급…“미국 반쿠바정책 여전”(10/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관계정상화의 간판 밑에 계속되는 봉쇄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수십 년간 단절되었던 쿠바와 미국 사이의 외교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쿠바 외무상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쿠바와의 관계개선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봉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폭로함.
 - 신문은 또 “미국의 목적은 오직 하나 쿠바 정부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저들에게 고분고분하는 친미국가를 세우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申류원산 김정은과 회동…“6자회담 재개·한반도 평화유지”(10/9, 산화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권력서열 5위 류원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9일 밤 회동했다고 신화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함.
 - 류원산 상무위원은 김 제1위원장과 회동에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로우며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류 상무위원과 김제1위원장은 또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확대하고 모든 수준에서 교류를 증진해 양국 관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통신은 전함.
 - 류 위원장은 또 9일 회동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의 서한을 전달하고 시 주석은 편지에서 중국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북한과 긴밀한 소통과 심화된 협력을 추구하기를 바란다면서,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인 중-북 관계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소망을 피력했다고 통신은 전함.
- 申류원산 “전통적 북중우호 추진, 김정은과 광범위한 합의”(10/10, 산화통신)
 -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원산 상무위원은 10일 오후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에서 북한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말함.
 - 김영남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국 대표단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북중 간의 전통적인 우의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함.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우간다 대통령, 북한 최고상 국제김일성상 수상 거부"(10/7, 자유아시아방송)
 -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상인 국제 김일성상 수상을 거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북한은 지난해 10월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을 독자적인 개발을 바탕으로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이뤘다며 국제 김일성상 수상자로 선정했으나 우간다 정부는 선정 한 달만인 지난해 11월 북한 당국에 수상 거부 의사를 통보하면서 선정 1년이 지나도록 시상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이 같은 수상 거부에 명경철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는 “국제 김일성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라”라며 수상을 독려하고 있지만, 우간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튀니지 일간지 ‘알마그레브’가 전한 내용을 인용하여 방송은 보도함.
- 쿠웨이트서 ‘밀주 제조’ 北 근로자 22명 검거(10/9, 연합뉴스)
 - 쿠웨이트 경찰이 밀주를 제조한 혐의로 북한 근로자 22명을 검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북한 근로자들은 쿠웨이트시티 부근 즈리브 알슈유크 지역의 숙소에서 밀주를 만드는 설비를 차려놓고 대규모로 이를 판매하다 쿠웨이트 경찰에 적발됐으며 경찰은 이 곳에서 밀주 400명과 통에 담긴 술 9천700ℓ, 제조 설비도 함께 압수했다고 뉴스는 인용하여 전함.

- 日 외무성홈페이지에 과거죄행 삭제(일본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하였다는 내용) 관련 ‘죄악의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파렴치성과 철면피성이 극도에 이르렀다’며 ‘어제 날의 일제침략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파렴치하고 간특하며 악착스러운 사무라이 악종들’이라고 비난(10.5,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부산항 입항 예정과 우리 軍의 ‘스파이크’ 미사일 서해 5도 배치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분별없는 도발행위’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대화분위기를 파괴하는 군사적 대결방동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고 주장(10.6, 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아베 총리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는 피력에 대해 ‘양천대소할 노릇’이라며 ‘돈주머니나 흔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넘보는 일본의 추태는 수준이하의 망동’이라고 비난(10.6,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국의 靑-太지역과 한반도주변 무력증강(신속반응무력체계개편·핵항모 등 남한 방문 계획 등) 움직임은 “북남사이의 대결을 부추기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고의적인 망동”이라며 ‘무력증강’ 강조(10.7, 중앙통신·노동신문)
- [북한폴란드친선협회-폴란드북한협회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문] , 10월 7일 평양에서 조인(10.7, 중앙통신·중앙방송)
-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교육재단에서 김정은에게 수여하는 ‘수카르노의 별상’ 전달 의식, 10월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10.8, 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기금이사회 대표단, 10월 8일 평양 도착(10.8, 중앙통신)
- 방글라데시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더모트 하드슨’ 영국주체사상연구소 소장 위원장, 10월 8일 평양 도착(10.8, 중앙통신)
-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대표단·중국 단동시 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 10월 8일 평양 도착(10.8, 중앙통신)
-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고자 상월가족일행과 재중항일혁명투사 리재덕가족일행, 해외연고자 손원태가족, 10월 8일 평양 도착(10.8, 중앙통신)
- 러시아친선대표단·독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대표단·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대표단 프랑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아일랜드조선친선협회대표단·싱가포르조선교류회친선참관단·호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전국서기장 일행, 10월 8일 평양 도착(10.8, 중앙통신)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0월 9일 ‘당 창건’(10.10) 70주년을 즈음하여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축전(10.9, 중앙통신)
- 중국 대표단(단장 : 류원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10월 9일 평양 도착(10.9, 중앙방송·중앙통신)
- 양형성(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 10월 9일 쿠바 국가이사회 부위원장(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10.10, 중앙통신)
- 北 노동당 대표단과 베트남 공산당 대표단(단장: 하 티 키엣 당 비서 겸 당대중운동부장), 10월 9일 평양에서 회담 진행(10.10, 중앙통신)
- 몽골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 등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과 대표들, 10월 9일 평양 도착(10.9, 중앙통신)
- 러시아 연해변강 고려인통일연합회대표단·아르츰시대표단과 중국 항일혁명투쟁 연고자들인 채세영 가족 일행·왕효명 가족, 10월 9일 평양 도착(10.9,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1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류원산 등 중국 공산당 대표단 면담 및 리창근(당 부부장)·리길성(외무성 부상)·리진군(주북 중국 대사) 등 참석(10.11, 중앙통신)

- 北 노동당 대표단(최태복 비서·박근광 부부장 등)·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 회담,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 및 ‘兩黨 관계 발전시킬데 및 상호 관심사 문제’ 토의(10.10, 중앙통신)
- AP통신사 총사장(개리 프루이트), 10월 10일 北 ‘당 창건’ 70주년 경축 ‘AP통신사 사진전시회’ 참석차 평양 도착(10.10, 중앙통신)
- 김영남, 10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 및 베트남공산당대표단을 만나 각각 담화(10.11, 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인도네시아 수카르노상 받아(10/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도네시아 교육재단 수카르노센터가 수여하는 수카르노상을 수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에게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교육재단에서 수여해드린 ‘수카르노의 별’ 상을 전달하는 의식이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전함.
 -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 중인 테구 산토사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 서기장이 상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고 전달식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장, 신흥철 외무성 부상, 조선인도네시아친선협회 위원장인 서호원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당 창건 70주년 앞두고 백두산 올라(10/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가 9일 방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8~9월 현지 지도 활동 기록영화에서 아나운서는 “김정은 원수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또다시 올라 숭고한 뜻과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고,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 하는 화폭이 펼쳐진다”고 소개함.
- 북한 김정은, 당 창건 70주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0/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동지가 영광스러운 조선 노동당 창건 70돌에 즈음하여 10월 10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보도함.

- 참배에는 김기남·최룡해·최태복·김양건·곽범기·오수용·김평해 당 비서를 비롯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한 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철석같은 맹세를 다짐했다”고 전함.
- 김정은, 열병식 육성연설 “미국과 어떤 전쟁도 가능”(10/10,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 방송)
- 김정은 제1위원장은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육성연설에서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당당히 선언할 수 있다”고 말함.
 - 그는 “침략과 전쟁으로 제 몸집을 비육시켜온 미제와 맞서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안기고 제국주의의 제재와 봉쇄도 강행돌파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은 원수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함.
 - 그는 또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언제나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위력한 보검이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힘있는 선봉대 돌격대였다”고 강조함.
 - 이어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제시하고 조국수호와 사회주의 건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에 우리 당은 자체의 힘으로 전반적 국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동시에 인민생활도 향상시켜 나가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언급함.
 - 그는 “미제는 참혹한 전쟁을 강요하였고 빈터 위에서 허리띠를 조이면서 힘들게 복구하면 또 새로운 침략의 위협을 몰아왔으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면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로 앞길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함.
 - 그는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한다”면서 “우리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70년의 승리의 역사와도 같은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위대한 조선 노동당이 우리 혁명을 이끄는 기관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특히 “우리당은 앞으로도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 전략을 제일 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최후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매진할 것”이라면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힘줘 말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유엔 총회 참석’ 북한 외무상, 각국 대표 만난뒤 귀국(10/6, 조선중앙통신)
 -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세르비아 등 각국 대표를 만난 뒤 6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6일 “회의 기간 리수용 외무상은 적도기니 부통령과 세르비아 제1부수상 겸 외무상, 브라질·노르웨이·스웨덴 외무상들을 각각 만났다”고 덧붙였다.
 - 그는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남아프리카 대통령, 볼리비아 대통령 등을 만났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체신상, 심철호에서 김광철로 교체(10/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우표전시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광철 체신상이 행사에 참가했다고 소개함.

- ‘숙청설’ 북한 마원춘 현업 복귀…계급은 소장으로 강등(10/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인 나선시를 또다시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원춘 설계국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했다고 보도함.
 - 마원춘 설계국장의 정확한 직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 영상을 분석한 결과, 8일 그는 소장 계급장을 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현장에는 마원춘 설계국장 외에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김양진·오수용 당 비서,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수행했으며 박영식 인민무력부장과 강표영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나선시 피해복구전투 지휘관과 김용진 내각 부총리는 현장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맞았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기 위하여 떠나면 하늘길, 뱃길을 달려 기적의 선경마을 나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찾았다”고 전하고 새로 지은 주택과 도로, 옹벽, 배수로 상태를 점검한 뒤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김 제1위원장이 사진을 찍기 위해 수만 명의 군인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1시간30분 기다렸다고 전함.

- 북한 간부들, 당창건 70주년 축하문 김정은에 전달(10/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동지께 노동당 창건 70돌에 즈음해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7일 공동 명의로 된 축하문을 드렸다”고 보도함.
 -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축하문 채택 모임에는 당·정·군 간부들과 중앙기관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 등이 참석했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뜻 깊은 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열화 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는 내용의 축하문을 낭독했다고 통신은 전함.
 - 한편,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축하문 채택 모임 영상에서 견장에 ‘별 하나’인 소장(우리의 준장) 계급장을 단 여군 장성이 이례적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군 간부 계급은 ‘롤러코스터’…운동현·강표영 재진급(10/8, 연합뉴스)
 - 북한 인민무력부의 운동현·강표영 부부장이 중장(별 두개)에서 상장(별 세개)으로 다시 진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조선중앙TV가 8일 오전 방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나선시 방문 영상에서 시찰을 수행한 강표영 부부장은 군복에 상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고 뉴스는 전함.
 - 이에 앞서 조선중앙TV가 7일 오후 방영한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채택 모임’ 영상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운동현 부부장이 군복에 상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고 뉴스는 전함.

- ‘지뢰도발 문책설’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도 견재 과시(10/10, 연합뉴스)
 -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 이후 문책 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이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견재함을 과시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10일 오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과 함께 주석단에서 기념식을 관람했다고 뉴스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당 창건 70주년 보고대회…“김정은 목숨으로 사수”(10/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를 9일 오후 6시34분부터 47분가량 녹화 중계함.
 - 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와 김기남·김양건·최룡해·곽범기·오수용·최태복·김평해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철만, 리영길 총참모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함.
 -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조연준 당 제1부부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와 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대표, 해외 대표단 등도 함께 자리함.
 - 보고자로 나선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야 하겠다”며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
-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사상 최대 규모(10/10,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함.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10일 오후 3시(북한 시간 2시30분)부터 5시5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육·해·공군과 노동적위군 열병식과 군중시위(민간 퍼레이드) 행사 등을 실황중계함.
 - 북한 인민군의 김일성광장 입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장에 이어 리영길 군 총참모장의 시작 보고로 본격적인 열병식 행사가 시작됨.
 - 열병식 주석단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 중앙으로 좌측(김 제1위원장 기준)에는 류원산(劉雲山) 상무위원 옆에 김기남·최룡해·최태복·김양건·곽범기·오수용·김평해 당 비서와 조연준 당 부부장이 위치했으며, 오른쪽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자리함.
 - 김정은 연설에 이어 2만여 인민군의 열병 행진이 진행됐으며, 행진에서는 소형화 핵탄두를 탑재했다는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300mm 신형 방사

포가 처음 공개됐고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핵배낭’ 마크 보병부대도 다시 등장함.

- 인민군 열병 행진은 공군의 소규모 ‘에어쇼’로 마무리됐고 이어 10만여 명 규모 북한 주민들의 민간 퍼레이드가 이어짐.

■ 북한 김영남, 당창건 기념 열병식 주석단 초대석 앉아(10/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열병식과 평양시 군중 시위가 10일 평양에서 열린 소식을 전하면서 “김영남 동지, 박봉주 동지, 양형섭 동지 등과 쿠바 국가이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동지, 잔시 포시캄 라오스 인민혁명당 비서 겸 당 조직위원회 위원장, 하 티 키엣 베트남 공산당 비서 겸 당 대중운동부장이 주석단 초대석에 자리잡았다”고 전함.
- 일반 초대석에는 당 창건 70주년 경축 대표들, 당·정·군 관계자들, 인민군 장병들, 통일애국투사와 비전향장기수들, 혁명열사 유가족들, 해외동포 축하단, 반제 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등은 초대석에 자리했다고 통신은 전함.
- 또한 통신은 청년전위들의 횃불 행진이 10일 저녁에 진행됐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총리, 류원산 상무위원과 쿠바·베트남·라오스 대표단 등이 주석단에서 이를 지켜봤다고도 보도함.
- 평양 목란관, 인민문화궁전과 옥류관, 청류관에서는 간부들과 당 창건 경축 대표들이 참석한 경축 연회가 열렸으며 해외 동포들을 위한 연회도 열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당 창건 70주년 앞두고 ‘혼연일체’ 강조(10/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3면 전면에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실고 김씨 일가와 주민들이 자연재해와 경제적 역경 속에서도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며 북한 체제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함.

- 그 예로 지난 8월 나선시에서 홍수 피해가 크게 났을 때 주민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손에는 김 씨 일가의 초상휘장을 쥐고 있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당에 대한 인민의 깊은 사랑이고 산악 같은 믿음”이라고 평가함.
 - 이어 1998년 ‘고난의 행군’과 1997년 북한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소의 가동중단 위기를 넘기고, 지난 8월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로 전환한 것 모두 ‘전례 없이 폭발한 인민의 힘’이었다고 추켜세움.
- 북한, 당 창건일 하루 앞두고 ‘김정은 치적’ 선전(10/9,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9일 평소와 달리 2개면을 더 늘린 8개면으로 1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도네시아 교육재단 수카르노센터로부터 상을 받은 소식을 비롯해 외국에서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와 선물 소식 등을 실어 김 제1위원장이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함.
 - 2면에는 2012년 4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이후 올해 9월까지의 주요 활동 사진들을 전면에 도배함.
 - 3면에는 ‘조선노동당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 위업의 위대한 향도자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전면에 싣고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은 역사의 온갖 폭풍우를 헤치고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했다”며 김 제1위원장의 ‘영도력’을 치켜세움.
 - 5~8면에서는 경공업 등 민생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성과와 주요 건축물 완공, 홍수 피해를 본 나선시 새집들이 등 ‘당 창건 기념용’ 성과들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치적으로 상세히 소개함.
 - 조선중앙통신도 9일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으로 10월의 대축전을 빛나게 장식’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당 창건 70주년인 올해 각지에서 이룬 성과들을 총 결산식으로 정리해 전함.
 - 북한, ‘체제 찬양’ 노동신문 논설위원에게 김정일훈장(10/9, 조선중앙통신)
 - 9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동태관 노동신문 논설위원에게 김정일 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함.
 - 통신은 9일 동태관 논설위원은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타는 창작적 열정을 발휘하여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의 정신이 맥박치는 기사들을 훌륭히 창작했다”고 훈장 수여 이유를 설명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쿠바 수상과 중국 국가 주석 등(국무원 총리·'全人代' 상무위원장) 각국 黨·국가수반들의 '北 정권수립' 67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10.7,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黨 총비서' 추대(10.8) 18주년을 맞으며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가 있었기에 사상체계와 영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된 혁명적 당,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 당, 불패의 당으로 강화 발전되고 김일성 조선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떨쳐지게 되었다'며 당건설 영도업적 찬양(10.8, 중앙통신·노동신문)
- '당의 혁명영도는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영도이며 선군혁명영도와 노선으로 일관된 특출한 혁명영도'라고 강조하며 '당의 영도 밑에 전진하는 사회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며 김정은 원수님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해 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라고 칭송(10.8,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 父子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여러 단위들에 건립(10.8, 중앙통신)
- 黨 창건(10.10) 70주년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10월 8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10.8,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김정일기금이사회 제1차 확대회의, 10월 8일 평양에서 진행(10.8, 중앙통신)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건설 등 올해의 건설성과와 정치·군사·체육 등 분야별 성과를 거론하며 '당 창건 일흔돌을 빛내이기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은 백두산 대국의 필승불패성과 청년 강국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며 폭풍처럼 노도친 전인민적인 대진군이었다'고 선전(10.9, 중앙통신)
- 北, 10월 8일 동태관(노동신문사 논설위원)에게 '김정일훈장' 수여(10.9, 중앙통신)
- 당창건기념탑 관리소 창립('95.10.5) 20주년 기념보고회, 10월 8일 현지에서 진행하고 결의문 채택(10.9, 중앙방송)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10월 11일 서호원(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 부위원장 겸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 및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10.11,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북한, 함북 경원군 일부 경제개발구 지정(10/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함경북도 경원군 류다섬리 일부 지역을 경원경제개발구로 지정

- 했으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8일 발표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경원경제개발구에는 북한 주권이 행사된다”고만 관련 소식을 전함.

다. 경제 상황

- 북한 대동강 유람선 ‘무지개호’, 당 창건일 앞두고 개업(10/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개업해 개업식이 5일 대동강반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개업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와 최태복 당 비서를 비롯해 무지개호 건조에 동원된 부대 지휘관과 군인들, 평양시 근로자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무지개호는 한 번에 1천230여 명의 손님들이 조선민족 음식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요리들을 봉사 받으며 풍치 수려한 대동강을 유람할 수 있게 건조됐다”고 선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영국 NGO, 북한 나선시 수재민에 7억원어치 구호품 전달(10/7, 미국의소리)
 - 영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웰터박스’가 지난 여름 홍수로 큰 피해를 본 북한 나선시 주민들에게 천막과 담요 등 61만 달러(7억1천200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보낼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함.
 - 앤드류 애번스 웰터박스 업무담당 국장은 7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제적십자사(IFRC)와 북한 조선적십자사,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과 조율 과정을 거쳐 수재민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구호품은 1~2주 안에 보낼 것”이라고 밝힘.
- 올해 북미 교역액 50억원…작년 20% 수준(10/7,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 미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올해 1~8월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은 440만 달러(51억여원)로 작년 같은 기간 1천990만 달러의 22%에 불과하다고 보도함.
 - 이 교역액 전액은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으로, 대부분 미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교역액의 85%가 넘는 375만 달러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됐다고 방송은 전함.

- 유엔, 북한 수재민 1만4천명에 긴급거처 지원(10/10,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소리)
 - 유엔이 북한 수재민 1만4천400여 명에게 천막 등 긴급 거처를 마련해주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 지난 8일 발표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은 이밖에 수재민 2만 4천500여명에게 수질정화제와 위생용품을, 1만 1천여 명에게는 고열량 비스킷을 전달했으며, 1만 3천500여 명의 어린이에게 학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 3천여 명에게 속옷과 여성용품, 손전등, 손톱깎이 등을 나눠줌.
 - 유엔의 최근 피해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 강원도와 양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은 함경북도 나선시로 5천399가구가 피해를 봤고, 나머지는 함경남북도 일대 500여 가구, 황해남도 최대 300여 가구 등임.
 - 유엔은 이번 홍수로 북한 전역에서 수재민 2만 2천여 명이 발생했고 1만 4천500여 명은 집을 잃었다고 설명했으며, 또 주택 6천여 채가 부분 파손되거나 전파됐고 농경지 4천ha 이상이 유실됐으며 주민 5천400명에 대한 식수 공급이 중단됐다고 함.

- 희천3호발전소, 지난 1일 물잡이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전력생산의 동음이 울려 퍼졌다고 소개(10.5, 중앙방송)
- 자강도 장자산종합식료공장, 구봉샘물 새로 개발 보도(10.5, 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10.8), 함경북도 경원군 류다섬리 일부 지역에 '경원경제개발구'를 내오기로 결정(10.8, 중앙통신)
- 北, 흥건도간석지 최종 마감막이공사 완공(10.8,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홍수피해 나선시에 주택 1천800가구 신축(10/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6일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나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지역에 1천300여세대의 단층살림집들이 준비하게 일떠서(세워) 웅근(운전한) 하나의 주택구역이 형성됐다”고 보도함.
 - 방송은 “인민군 군인들은 단 2일동안에 1천300여세대의 살림집 기초공사를 끝내고 열흘만에는 전반적 살림집들의 벽체축조를 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선전함.
 - 한편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나선시 홍수 피해 주민들에게 집들이 선물도 전달했으며 선물 전달식은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평해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용진 내각 부총리, 강표영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 나선시 곳곳에서 열렸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평남 순천시 야산서 전기 구석기 유적 발굴(10/8,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동 야산에서 전기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굴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은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의 고고학자들로 이뤄진 발굴단이 해발 40m 정도의 야산 중턱 동굴자리에서 유적을 발굴했다”고 전함.
 - 발굴단은 발굴 과정에 주먹도끼와 찌개, 자르개, 망치를 비롯한 14점의 석기와 8점의 골기, 5천여 점의 짐승뼈화석, 1천94개의 포자와 화분의 화석을 찾아냈다고 통신은 전함.
 - 또 통신은 북한에서 처음으로 큰해리(제3기 플리오세 말부터 제4기 중갱신세까

지 생존했던 짐승) 뼈 화석이 1문화층에서 발견됐으며 “포자와 화분의 화석 분석에 따르면 당시 이 일대가 산림이 무성하고 초원과 숲지대로 이루어진 열대나 아열대의 기후조건에 해당하는 습한 환경이었다”고 전함.

- 당 창건일 앞둔 평양, 국력과시 위한 막바지 단장 한창(10/9, AP통신, 로이터통신)
 - AP통신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호화로운 기념식과 열병식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함.
 - 이번 기념식을 앞두고 북한이 군인들을 동원해 밤낮으로 새 단장에 나선 결과 평양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생겼다고 외신들이 설명했다는 연합뉴스는 인용하여 보도함.
 - 로이터통신은 북한 통신업체 고려링크 직원의 말을 인용해 “휴대전화 사용자가 300만 명으로, 2012년 이후 3배나 늘었다”며 “북한 경제가 뼈격대는 상황에서도 부(富)가 증가한 것은 분명해 보였다”고 보도하고 열병식을 앞두고 평양 시내 일부 도로가 통제된 탓에 평양 시내에서는 보기 드문 교통체증도 나타났다고 전함.
- AP통신, 평양서 북한 당 창건 70돌 기념 사진전시회(10/10, 조선중앙통신)
 - 평양에 특파원을 둔 미국 AP통신사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회를 평양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은 “전시회장에는 경축의 열병식 주석단에서 당의 선군위업을 충직하게 만들어가는 일당백 혁명강군의 열병대오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는 김정일 동지와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이 전시됐다”고 보도함.

- 北, 구석기시대전기의 유적(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동 해발 40m정도의 야산중턱 동굴자리) 발굴(10.8, 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 모자이크 벽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평강군 읍축산농장·철원군 외학리·금강군 현리에 건립(10.9, 중앙통신)
- 北 교예배우들, '제15차 중국 오교국제교예축전'(중국 하북성)에서 1위 수상(10.9, 중앙통신·중앙방송)
- AP통신사 사진전시회 개막식, 10월 9일 평양문화전시관에서 진행(10.9,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한, 최대 핵무기 22개 분량 핵물질 보유 가능성(10/8, 연합뉴스)
 -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7일(현지시간) 수정 발표한 ‘북한의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 재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닌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양이 핵무기 15~22개 분량일 것이라고 추산했음.
 - 이 연구소는 북한이 2013년 핵실험 때 플루토늄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분리된 플루토늄이 30~34kg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어 ISIS는 북한이 원심분리시설 2곳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약 240kg, 1곳만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약 100kg의 무기급 농축우라늄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음.
 - ISIS는 실제로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통상 핵무기 1개 분량으로 여겨지는 핵물질보다 약 40%를 더 사용하게 된다고 하며,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했을 핵무기는 10~16개라고 설명했다.

- 미군, 북한, 미 본토까지 핵미사일 날릴 역량 있다(10/8, 연합뉴스)
 - 빌 고트니 미 북부 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사령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연구기관 애틀랜틱 카운슬의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이 로켓 발사로 핵무기를 미국 본토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로켓에 실어 미국 본토까지 보낼 정도로 소형화했다는 정보기관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언급함.
 - 고트니 사령관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군이 핵미사일 방어력을 갖췄다고 강조함. 그는 “김정은이 우리에게 무엇을 쏘는 어리석은 짓을 해도 우리는 24시간 대응할 준비됐다.”며 “맞춰야 할 것들을 때려 떨어뜨릴 자신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 앞서 지난 3월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올해까지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음.

- 미 CNN, 북한, 잠수함 탄도탄발사 실험 가능성(10/10, 연합뉴스)
 -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특정한 형태의 무기실험을 준비하는 듯한 징후가 발견됐다고 미국 CNN이 9일(현지시간) 보도함.
 - CNN은 두 명의 미국 정부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잠수함에서 동해상을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정상적 도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하였음. 미국 당국자들은 특정한 형태로 위력을 과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정확히 언제 계획을 이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CNN은 밝힘.
 -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당시 미국 측은 실제로 수중발사가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며 단순한 사출실험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 북한, 열병식서 다중화·소형화 핵탄두 탑재 로켓 공개(10/10, 연합뉴스)
 -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다중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들을 탑재한 전략 로켓을 공개했다.”고 주장하였음.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생중계하면서 “다중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들을 탑재한 위력한 전략 로켓들이 연이어 나갑니다.”라고 설명하였음. 또한 조선중앙방송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 했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 “초정밀·초강도 타격으로 우리를 해치려는 적의 야성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멸적의 보복의지를 안고 나간다.”고 부연 설명함.
 - 이와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북한이 탄두 형태가 개량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고만 설명했으며,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는 탄두 형태가 뾰족했으나 이번에는 둥근 형태로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음.

나. 미·북 관계

- 북한, 미국-쿠바 관계회복 첫 언급…미국 반쿠비정책 여전(10/7,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관계정상화의 간관 밑에 계속되는 봉쇄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수십 년간 단절되었던 쿠바와 미국 사이의 외교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도함.

- 북한 언론이 미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그러나 “미국이 쿠바의 상업, 금융 등에 대한 봉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함. 신문은 쿠바 외무상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쿠바와의 관계개선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봉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폭로했음.
 - 북한은 나아가 “수십 년간 강행되어온 미국의 봉쇄책동은 쿠바의 사회경제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면서 “지난 50여 년 동안 미국의 제재조치로 쿠바경제가 입은 손실액은 1조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고 언급함. 또 “미국의 목적은 오직 하나 쿠바 정부와 사회체도를 뒤집어엎고 저들에게 고분고분 하는 친미국가를 세우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김정은, 열병식 육성연설…미국과 어떤 전쟁도 가능(10/10, 연합뉴스)
- 김정은 제1위원장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육성연설에서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시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당당히 선언할 수 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미제(미국)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침략과 전쟁으로 제 몸집을 비육시켜온 횡포한 미제와 직접 맞서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안기고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제재와 봉쇄도 강행돌파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단합된 힘은 원수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함.
 - 이날 열병식 행사장의 귀빈석인 주석단에는 해외 대표단 가운데 유일하게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올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중 혈맹 관계를 등에 업고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에 대한 경고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음.
- 미국 태평양사령관, “당면한 최대 위협은 북한 김정은”(10/11,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 행사가 치러지기 하루 전날인 이날 군사전문 기자·편집인 협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말했음.
 - 해리스 사령관은 “내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북한으로부터 나온다.”며 “북한이라는 나라와 군사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예측불가능한 지도자(김 위원장 지칭)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그는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은 공통의 가치와 우려를 갖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있다.”며 “미국이 일본의 역내 군사적 역할 확대를 환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처”라고 밝혔음.

다. 중·북 관계

- 中 지도자 25년간 17차례 방북…새 지도부 들어선 ‘뚝’(10/6, 연합뉴스)
 - 중국의 지도자들이 1990년 이후 25년간 최소 17차례 북한을 찾았으나 양국에서 새 지도부가 출범한 2012년 이후에는 방북 행보가 ‘뚝’ 끊긴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신경보(新京報)의 웨이신(微信·위챗) 계정 ‘정사아(政事兒)’는 6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식 참석차 9일부터 시작하는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자국 지도자들의 방북 사례를 상세히 소개함.
 - 이에 따르면 중국은 1990년 이후 올해까지 25년에 걸쳐 최소 17명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북한에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러나 중국 지도자의 북한 방문은 시진핑 체제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2년 이후 발길이 뚝 끊겼는데, 이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등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中, 김정은표 의무교육제 이례적 호평…관계개선 신호될까(10/8, 연합뉴스)
 - 중국공산당의 유일한 중앙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가 8일 북한의 12년 의무교육제도를 이례적으로 호평하는 기사를 게재해 배경이 주목됨.
 - 인민일보는 이날 국내외 주요소식을 다루는 3면 하단에 ‘조선(북한)이 인재 교육에 큰 힘을 쏟고 있다’는 제목의 평양 특파원 발 기사를 통해 북한의 교육제도를 소개함. 신문은 북한이 1945년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 발전을 중시하며 보편적인 의무교육제도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하며 그 과정을 조명했음.
 - 한편, 인민일보가 이날 갑작스럽게 북한의 교육제도를 호평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10일)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특히 북한 노동당과 반세기 넘게 깊은 교류를 이어온 중국 공산당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양측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최고지도부 일원인 류윈산(劉云山)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겸 중앙 서기처 서기를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 파견키로 해 주목을 받았음.

- 시진핑, 김정은에 축전 “북중우호 공고…평화위해 역할 하겠다.”(10/9,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면서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북한의 도발을 견제함.
 - 중국 인민망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개인의 명의로 조선(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전체당원,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힘. 이어 “조선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주석, 김정일 총서기의 영도 하에 노동당은 조선인민을 이끌며 거듭되는 곤란을 극복했고 국가독립과 인민해방을 실현했다며 사회주의 혁명건설 사업에도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함.
 - 아울러 “북중 우의는 영광스러운 전통이 있다.”며 “우리는 조선 동지들과 함께 노력해 중조 친선을 훌륭하게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함.
- 시진핑, 김정은에 ‘유훈·평화’ 거론…핵포기 우회 촉구한 듯(10/9,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9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발송한 축전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거론함.
 - 시 주석이 선대 유훈을 거론한 것은 일견 김 제1위원장의 경제정책 등을 호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해왔고 시진핑과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핵보유가 지역 불안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을 놓고 보면 시 주석의 선대 유훈 거론은 김 제1위원장의 핵보유 노선 혹은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질타로도 읽힘.
 - 한편, 시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중국 최고지도자가 외교무대에서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이행의무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음.

- 북한, 중국 내 유일 김일성 동상 ‘보호활동’ 개시(10/9, 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중국 내 유일한 김일성 주석 동상을 보호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9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0월 한 달간 중국 지린(吉林)시 위윈(毓文)중학교 내에 건립된 김일성 동상 주변에 감시 인력을 배치해 외부침입 및 동상 훼손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해짐.
 - 위윈중학교는 김 주석이 1927~1930년 다니면서 공산주의사상을 학습한 곳으로 북한이 주요 혁명유적지로 선전하는 장소임. 북한은 동상보호를 위해 중국 내 외화벌이 일꾼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선양(瀋陽)·다롄(大連)·단둥(丹東)·옌지(延吉) 등지의 무역일꾼 700여 명이 지린으로 불려와 북한당국 지시로 1주일씩 교대로 동상을 지키고 있음. 이들은 1인당 500위안(약 9만 원)의 회비를 내고 지린에 머물면서 식비, 숙박비를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짐.

- 시진핑, 김정은에 핵포기·6자회담 압박…강온전략 동시구사(10/10, 연합뉴스)
 - 현재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은 평양 도착 첫날인 9일 밤 김 제1위원장과 한 회담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고위층 왕래의 강화, 양자 경제협력 촉진 등을 제시하며 북중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제시했음.
 - 또한, 류 상무위원은 “중국은 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반도의 비핵화 목표,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한다.”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이어 “우리는 조선(북한)과 마찬가지로 조속히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임.
 -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완곡한 어법을 사용하는 중국의 외교적 관례에 비춰보면, 류 상무위원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김 제1위원장 면전에서 ‘핵포기’를 촉구한 것에 가깝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냉각된 북중 관계에도 권력서열 5위인 류 상무위원을 보내기로 한 것은 북중 관계 개선뿐 북한에 대한 핵 포기 압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음.

- 中류윈산 김정은과 회동…“6자회담 재개 한반도 비핵화” 강조(10/10, 연합뉴스)
 -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 권력서열 5위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9일 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나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논의함.

- 신화 보도에 따르면 류 상무위원은 이날 회동에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안정 실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책의 3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음. 또 중국은 북한과 함께 노력해 6자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관련 당사국들의 이익과 지역 안정, 세계평화에 부합한다고 강조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시 주석의 서한에 진심 어린 감사와 안부 인사를 전하며, 이어 중국이 류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식에 파견한 데에서 진실한 우정을 느낄 수 있으며, 중국 사절단의 이번 방문이 양국의 우정과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함.

■ 북한 김정은, 북중 전통, 기록 아닌 실천으로 계승해야(10/10, 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은 1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방북한 중국 권력서열 5위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양국관계 복원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비교적 상세히 보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선 노동당 창건 70돌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류윈산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전함.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이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의의 깊은 방문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전통은 역사책이나 교과서에 기록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계승하고 빛내어가야 한다.”면서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라고 북중관계 강화에 확신을 나타냈고, 이에 류 상무위원은 “중국 공산당 대표단은 피로써 맺어진 중조(중국과 북한)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 사이의 전투적 친선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사명을 안고 조선을 방문하였다.”고 통신은 전함.

- 류윈산, 최룡해에 남북관계 개선 촉구…자주평화통일지지(10/10, 연합뉴스)
 - 방북 중인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중국은 북남관계 개선과 화해협력, 그리고 최종적인 자주평화통일 실현을 굳건하게 지지한다.”고 밝힘.
 - 관영 신화통신은 류 상무위원이 지난 9일 오후 최 비서를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한결같은 원칙적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고 10일 보도함. 중국의 ‘원칙적 입장’은 사실상 비핵화 등 ‘한반도 3원칙’을 뜻함.
 - 류 상무위원은 같은 날 열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회담에서도 ‘한반도 3원칙’과 ‘조속한 6자 회담 재개’를 거론했음. 류 상무위원의 이런 발언은 결국 북핵문제 해결과 북중 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中류윈산 바로 옆에 둔 김정은, 핵병진노선 언급안해(10/10, 연합뉴스)
 - 북한의 10일 열병식에서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왼쪽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아 북중관계 변화가 주목되고 있음.
 - 김 제1위원장과 류 상무위원은 전날 국민급 영빈관인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만나 북한과 중국이 “피로써 맺어진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 강화 의지를 나타냄.
 - 특히 김 제1위원장이 이날 열병식 연설에서 그간 밝혀왔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은채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물러섬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준 것으로 읽힘. 김 제1위원장이 류 상무위원 면전에서 핵무력 병진노선을 거둬들이는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이 축전을 통해 강조한 선대의 ‘유혼 존중’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가능함.

- 시진핑-김정은 13차례 소통…축전·구두메시지·서한(10/11,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냄으로써 양국 간의 ‘혈맹관계’ 회복에 대한 관심과 함께 두 지도자간의 소통이 앞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11일 중국 신정보에 따르면 시 주석과 김 제1위원장 간 축전, 구두 메시지 전달,

서한 전달 등을 통한 소통은 2012년 11월 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 주석 집권이후 13차례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임.

- 이번에 북한을 방문한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 제1위원장에게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음. 친서는 일국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 보내는 적극적인 신호이자 선의를 표시하고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이며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어려울 경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함.

■ 中전문가, 北 열병식, ‘핵보유에 타협없다.’ 의지 과시한 것(10/11, 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10일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선보인 것은 북한이 ‘핵보유’ 노선에는 일말의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중국의 북한 전문가가 분석함.
-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고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11일 중국 인민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일련의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열병식은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이 핵보유 노선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함.
- 장 교수는 이번 열병식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이 같은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몇 년간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북한의 실력(국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함.

■ 中 언론, 북한, 최대규모 열병식…체계화된 작전능력 선보(10/11, 연합뉴스)

- 중국 언론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선보였다고 북한이 체계화된 작전능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신경보는 11일 노동당 창건기념일인 전날 거행된 열병식이 소요시간, 동원인력, 투자역량에서 최대 규모였다고 소개했으며, 특히 경화시보는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체계화된 장비를 과시했다고 보도함.
- 이들 신문은 자동화 포에서 각종 미사일, 장갑차까지 전체적으로 체계화된 장비를 선보였다면서 이전의 노후 화포나 사거리가 비교적 근거리인 미사일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함. 특히 장갑차의 지상타격, 각종 화포를 중심으로 원거리 타격, 각종 미사일 중심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선보임으로써 북한의 작전능력이 체계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내비쳤다고 지적함.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러시아 대표단 불참(10/10,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과 전통적으로 친선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중 러시아만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10일 북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러시아에서 방북한 친선단은 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 협주단과 연해변강 아르츰시(市) 대표단(단장 올라지미르 노비코프 시장)이 전부임. 그 외에는 연해변강 고려인통일연합회 대표단(단장 박평원 위원장) 등 러시아를 근거지를 둔 고려인 단체로, 국가나 러시아 공산당 차원의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보도는 보이지 않음.
 - 이는 앞서 북한이 지난 5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축하 사절로 보낸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처럼 러시아가 다른 우방과 달리 대표단을 따로 보내지 않은 것은 우선 이번 행사가 국가가 아닌 당 중심의 행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바. 기타

- ‘유엔 총회 참석’ 북한 외무상, 각국 대표 만난 뒤 귀국(10/6, 연합뉴스)
 -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세르비아 등 각국 대표를 만난 뒤 6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유엔 총회 제70차 회의에 참가했던 리수용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6일 귀국했다.”고 전하며, 이어 “회의 기간 리수용 외무상은 적도기니 부통령과 세르비아 제1부수상 겸 외무상, 브라질·노르웨이·스웨덴 외무상들을 각각 만났다.”고 덧붙였다.
 - 리 외무상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따라 주어진 주권국으로서의 자주적 권리”라며 ‘위성 발사’를 금지하면 끝까지 강경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밝힘. 그는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

장을 접견하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남아프리카 대통령, 볼리비아 대통령 등을 만났음.

- 유엔, 북한 수재민 1만4천명에 긴급거처 지원(10/10, 연합뉴스)
 - 유엔이 북한 수재민 1만4천400여 명에게 천막 등 긴급 거처를 마련해주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8일 북한 홍수 피해 지원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이밖에 수재민 2만 4천500 여명에게 수질정화제와 위생용품을, 1만 1천여 명에게는 고열량 비스킷을 전달함.
 - 이번에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에 참여한 유엔 기구들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으로, 유엔의 최근 피해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 강원도와 양강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음. 유엔은 이번 홍수로 북한 전역에서 수재민 2만 2천여 명이 발생했고 1만 4천500여 명은 집을 잃었다고 설명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정상회담서 '공동설명서' 채택...전략적 협력 포괄 규정(10/6,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짐.
 - 양국은 이번 공동설명서에 북핵·북한 문제 외에 한미 동맹 관계, 동북아 문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국제평화유지, 개발협력, 보건안보, 극단적 폭력주의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으로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공동 인식이 문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북핵 문제는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대화를 긴밀하게 진행한다는 데에 같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됨. 다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문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짐.

- 美전문가, 한미동맹이 튼튼해 박대통령 中열병식 참석 가능(10/7, 연합뉴스)
 - 미국의 대표적 중국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이 튼튼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중국 열병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
 - 글레이저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중국과 북한: 변화하는 중국의 전략적·정책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워싱턴에 있는 누구도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을 우려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또한, “일각에서 한·중 관계가 한·미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의 ‘제로 섬’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는 정반대로 본다.”며 “한·미, 한·중 관계는 서로 보완적”이라고 말했음. 특히 “한국은 경제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안보문제에 관한 한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맹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라고 평가함.
 - 이와 관련해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는 같은 세미나에 나와 “한·중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중국은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서 미국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고 밝힘.

- 美하원의원들, 박대통령 방미 환영…한미동맹, 亞안정의 핵심축(10/8,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비롯한 연방 하원의원 7명은 7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장에서 특별자유연설(Special Order Speech)을 통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방미를 환영하고 이번 방미가 한·미동맹을 가일층 심화·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 특히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조성된 한반도 긴장상황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음.
 - 미 의회 내에서 대표적인 친한파로 분류되는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 양국은 지난 65년간 피로써 맺어진 혈맹으로서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특히 한·미 동맹은 한국전쟁 이후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의 린치핀(핵심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음. 새먼 위원장은 “한·미동맹은 지난 60년 넘게 동북아 평화와 안보, 번영의 린치핀 역할을 해왔다.”면서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위협에만 대처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발전과 다른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미 상원, 박 대통령 방미 환영...드레스덴 통일구상 지지(10/9, 연합뉴스)
 - 미국 상원이 다음 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방미를 환영하고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시켜나갈 것임을 천명함. 상원은 8일(현지시간)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환영과 한·미 동맹 축하’라는 제목으로 발의한 결의안(S. RES. 278)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 결의안은 박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혈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드레스덴 통일 구상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으로 대표되는 우리 정부의 통일·안보 정책기조를 지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결의안은 특히 “한·미 동맹은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양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 언급하였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28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내용에 주목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힘.

- 전 백악관 경제보좌관, 한국 TPP가입 ‘0순위’...진입장벽 높을것(10/9, 연합뉴스)
 - 한국은 최근 타결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가 가입 대상국 ‘0순위’에 올라 있으나,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입 장벽은 12개 창립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함.
 - 미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튜 굿맨 수석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한국이 협정 초기 단계에 TPP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한국이 최대한 빨리 TPP에 가입해야 할 충분하고 강력한 이유가 있다. 경제가 다소 흔들거리는 한국으로서는 가능한 한 모든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관세 등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TPP가 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라고 강조함.
 - 이에 앞서 제프리 쏿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워싱턴 D.C. 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과 TPP’ 세미나에서 “한국이 초기단계부터 TPP 협상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 실수’로, 앞으로 TPP 가입 시 진입 장벽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사드 배치 논의 있을 것(10/10, 연합뉴스)
 -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9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전망을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 곧이어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한·미·중 3자 협력 프로세스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

- 이 연구소의 한국석좌인 빅터 차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서로 한·중,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비교하면서 3자 협력방안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3자가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고 협력하게 될 경우 이는 전례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다만 “한국이 한·미·중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면 역내의 중요한 안보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함.
- 또한, 차 석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 “북한이 10일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며 “사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음.

■ **차대통령, 한미동맹 강화·북핵해결 주력…10월 외교전 ‘정점’(10/1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13~16일 미국 방문에서는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에서의 북한발(發) 안보 위협을 억제하는데 정상외교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특히 지난달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에 이어 이번 방미를 통해 사실상 올해 하반기 북한 문제 해결 및 도발 억지를 위한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의 ‘정점’을 찍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임.
-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무엇보다 1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단연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북핵 문제임. 한미 양국 정상은 여전히 불안한 안보 상황에 맞춰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됨.

나. 한·중 관계

■ **중국 교수, 내주 한미 정상회담서 ‘사드’ 논의 우려(10/7,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청샤오허 인민대 교수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중국과 북한: 변화하는 중국의 전략적·정책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음. 청 교수는 “중국 정부는 미군 기지이든 한국군 기지이든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위협이 되는 동시에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이어 “한·미·일 3국간 동맹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게 중국 정부의 오래된 정책적 입장”이라며 “사드 배치는 이 같은 3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중국 학계, 한국, 국익 위해 일대일로에 전략적 참여 모색해야(10/9, 연합뉴스)

- 중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축)’ 전략의 거점이자 출발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중국학자의 주장이 나왔음.
- 오래포럼(회장 함승희)과 중국 푸단(復旦)대 정당건설·국가발전연구센터는 9일 상하이 푸단대에서 ‘국가개혁과 동아시아의 발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한중일 3국의 국가전략 방향을 논의하였음. 이 자리에서 스위안화(石源華)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을 설명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는 일대(一帶)와 일로(一路)가 결합하는 지점이면서도 일대일로의 5가지 경로(五通) 구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함.
- 그는 그 이유로 미국과 북한 간 핵문제로 인한 마찰,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갈등 등 두 가지를 들었음. 하지만 한국은 해결이 쉽지 않은 이들 문제를 ‘보류’하고 국가전략과 현실적 이익 차원에서 일대일로의 출발점, 거점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음. 특히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에 따라 북한을 거쳐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하는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4개국이 공동으로 일대일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함.

- 中, 위안부기록 등재 실패에 “한국이 다시 준비 중” 기대(10/10, 연합뉴스)
 - 중국이 제출한 난징(南京)대학살 문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중국은 “침략전쟁의 잔혹성을 인식하고 역사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함. 하지만, 함께 등재를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자료가 등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자 아쉬움을 나타내었음.
 -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유네스코가 난징대학살 문건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한 뒤 신청 경위와 배경, 등재의 의미 등을 상세하게 풀어주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하였음.
 - 하지만, 이들 중국 언론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이 기록유산에는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짙막하게 언급하며 아쉬움을 나타냈음.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관련 문건과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것을 고려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군 위안부 기록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침.

- 中학자, TPP 확대 시 최대 수혜국은 한국…GDP 2.2% 증대(10/10, 연합뉴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한국과 중국까지 포함해 확대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2% 늘어나며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중국 경제학자의 전망이 나옴.
 - 중국 관영 상하이증권보는 10일 마쥘(馬駿) 중국 인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와 샤오밍즈(肖明智) 상하이발전연구기금회 연구원의 공동 연구결과 중국의 TPP 가입 여부에 따른 기회비용이 GDP의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바꿔 말하면 중국이 TPP에서 빠지면 중국이 TPP에 가입하는 경우에 비해 GDP가 2.2% 줄어든다는 의미임.
 - 두 경제학자는 현재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가 가입 의사를 보이는 중국,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4개국을 포함한 ‘대(大) TPP’로 확대되는 것을 가정해 이같이 전망함.

다. 한·일 관계

- 일본, 한국의 TPP 참가 검토에 ‘회심의 미소’(10/6,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과

중국 등의 시장 개방을 압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6일 보도했음. 일본은 TPP타결을 계기로 ‘메가 FTA’ 결성이 세계적으로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이 유럽연합(EU), 중국, 한국과의 통상 교섭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측이 TPP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고 풀이했음. 한국이 정식으로 협상 참가를 표명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TPP참가 12개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임.
- 한편, 일본은 중국에도 TPP 모델 수용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TPP는 국유 기업 개혁, 지적 재산권 보호, 투자 자유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지향하는 규칙을 담았음. 이는 모두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고민하는 사안들과 관련된 것임.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분명히 중국을 의식한 내용들”이라고 논평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덧붙였다.

■ **차대통령, 아베 친서 받고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기대”(10/8,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를 접견하고 한일 관계 및 한중일 3국 협력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야마구치 대표에게 과거사 핵심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 내 혐한(嫌韓) 발언·시위에 대한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우리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음. 대신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진전으로 한일 정상의 만남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 일본 측에 ‘여건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 **아베, 한일정상회담 꼭 실현하고 싶다(10/1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말 또는 11월초 한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꼭 실현하고 싶다.”고 언급했음.
- 아베 총리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귀국한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로부터 방한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야마구치 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힘.

- 한편, 아마구치 대표는 지난 7일 방한해 8일 박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였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오바마 TPP협상 타결 환영...중국 아닌 미국이 경제질서 싸야(10/5,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에 열린 무역·통상 장관회의에서 진통 끝에 환태평양경제 동맹 자협정(TPP)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 “TPP는 21세기에 필수적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 주는 것”이라고 환영함.
 -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 타결 선언 직후 성명을 내고 “TPP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성공을 위한 공정한 기회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것”면서 “TPP 미국산 제품에 대한 1만8천 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애므로써 우리의 농부와 목축업자, 제조업자들을 위해 공정한 경쟁의 마당을 제공한다.”고 밝힘.
 - 특히 “우리의 잠재적 고객 95% 이상이 외국에 사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쓰고, 노동자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申전문가 언론 TPP타결에 ‘독설’...“중국 빼면 쓴맛” 경고(10/6, 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TPP 협정이 아태지역의 중요한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하나라며 TPP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함. 그는 이번 협정이 다른 아태지역의 자유무역을 상호 촉진하고 공동으로 이 지역의 무역투자,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부합하고 아태지역 경제일체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건설에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공식입장에는 ‘빼’가 들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세계무역 기구의 규칙’, ‘아태지역의 자유무역 상호촉진’을 거론한 것은 TPP가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이나 환경 기준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임.

- 미국통으로 꼽히는 환쥘쨌(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인민 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아태지역을 전략적 기반으로 하는 TPP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정치외교적 고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중국을 배제할 경우 점차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음.
- 중국 언론, TPP로 중국 고립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10/7, 연합뉴스)
 -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12개 회원국 의회 비준으로) 정식 발효되더라도 중국을 고립시킬 수 없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7일 논평했음.
 - 이 신문은 천펑잉(陳風英)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장의 말을 인용, TPP 체제가 중국 상품의 수출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어느 국가라도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함. 천 소장은 국내 총생산(GDP)이 10조 위안 규모이고 세계 1위의 상품 시장을 가진 중국과의 수출 관계를 고려한다면 누구도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없다고 언급함.
 - 또한, 그는 중국이 여러 국가-지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 유럽 국가들과도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추진하면서 TPP에 대비해 온 점도 강조하며, 중국이 한국, 인도 등 16개국과 함께 관세철폐를 목표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 중인 점도 언급했음. 한편 난카이(南開)대학 아태협력체(APEC)연구중심의 류천양(劉晨陽) 부주임은 TPP의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나가는 방안으로 “자체적인 개혁 강화와 큰 틀에서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함.
- 中, 美日 주도 TPP에 “개도국 수요 존중해야” 우회불만(10/8,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과 관련, 개발도상국의 수요 존중을 내세우며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냄.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일체화를 촉진하는 제도 건설에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관련 무역체도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준수하고 다자 무역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 화 대변인은 이어 “아태지역 경제발전의 수준은 서로 다르다.”고 전제한 뒤 “발전상의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도국 경제체의 특수한 수요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각 당사국이 평등하게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는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동맹체’ 성격의 TPP가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이나 환경 기준 등을 설정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됨.

- 美-中 정부, 북한 열병식 앞두고 ‘북핵 불용’ 재확인한 듯(10/9, 연합뉴스)
 - 9일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전날 중국 지도부 거처가 있는 중난하이(中南海)에서 회담하였음.
 - 양 국무위원은 이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성공적인 미국 국민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중미관계 발전의 정확한 방향에 대해 한층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양자,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의 중요한 협력들을 추진했다.”고 언급하였음. 또 “다음 단계에서 양국은 두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진지하게 실현하고 중미 관계가 계속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임.
 - 블링큰 부장관은 이에 대해 “시 주석의 성공적인 미국 방문은 미중이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줬다”며 “미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번 방문의 공동인식과 성과를 진지하게 실현하고 미중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함.
 - 미중 정상이 합의한 ‘지역 협력’에는 북핵 문제 등이 포함돼 있어 양측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 불용’ 등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中, 미군 남중국해 인공섬 해역 진입 가능성에 우려 표명(10/9, 연합뉴스)
 - 미 해군이 조만간 남중국해 내 중국의 인공섬 주변 해역에 전함을 진입시키려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 현 남중국해 상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중국과 함께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 유지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9일 보도하였음.
 - 한편, 미 군사전문지 네이비타임스는 미 해군이 며칠 내 오바마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군함을 남중국해 내 중국의 인공섬 해역 12해리 안으로 진입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으며, 해군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승인이 임박했다고 관측하였음.

- 중국군 기관지, “美 연합지휘체계 배워라” 이례적 주문(10/9, 연합뉴스)
 - 중국군 기관지가 이례적으로 미군의 연합지휘체계를 배우라고 중국 인민군에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음.
 - 중국군 기관지 중국국방보(中國國防報)의 리원칭(李文清) 평론원은 8일 (현지시간) 평론에서 인민해방군의 구식 체계가 국가를 방위하고 승리로 이끌 능력이 있는 현대식 군이라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함.
 - 리 평론원은 미국이 제1차 걸프전에서 승리한 것은 전산화된 지휘·통제·통신·정보·감시·정찰(C4ISR) 체계 덕분이라며 인민해방군이 이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합지휘체계에 따른 새로운 병력 분배가 지휘관과 보병의 임무 수행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함. 한편, 중국군 기관지가 미군의 연합지휘체계를 배우라고 자국군에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SCMP가 전하였음.

- 중국, 남중국해에 등대 완공…미·중 신경전 고조(10/10,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9일(현지시간)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의 산호초에 건설된 화양(華陽)과 츠과(赤瓜) 2곳의 등대가 이날 준공식을 시작으로 작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함. 또한, 신화통신은 이번 등대 건설로 남중국해를 지나는 선박에 항로 안내와 안전 정보, 긴급 구조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항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이번 등대 완공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음.
 - 한편,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미군의 남중국해 인공섬 해역 진입 가능성을 언급한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한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향후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인을 거부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함.

바. 미·일 관계

- 12개국, “역사적인 TPP협정” 타결…세계 최대 무역협정 탄생(10/5, 연합뉴스)
 - 전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마침내 타결됨.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이날 오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옛새간의 밀고 당기

- 기 끝에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비롯한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며,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북돋울 것”이라고 강조함.
 - 12개 TPP 협상 참가국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TPP가 “투자과 무역을 자유화할 뿐 아니라, 참가국들이 21세기에 직면할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참가국들은 “이 역사적인 협정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돕고, 혁신과 생산성, 경쟁력과 생활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줄일 것”이라며 “투명성과 좋은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노동이나 환경의 보호 또한 강력해질 것”이라고 참가국들은 강조했다.
- 사사카와 재단 이사장, 일본 젊은이들 위안부 등 과거사 알아야(10/10, 연합뉴스)
- 미국 내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인 사사카와(笹川) 평화재단의 데니스 블레이어 이사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재단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최근 자신의 '아베 담화' 비판과 한·일 관계, 한반도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힘.
 - 최근 그는 전후 70년 아베 담화에 대해 ‘책임 회피로 일관한 실망스러운 문서’라는 취지의 글을 재단 홈페이지에 올려 주목을 끌었음. 그는 자신의 논평이 아베 담화에 대한 ‘비난’이 아닌 ‘합리적 비판’이며 “일본 정부는 아베 담화를 통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10~15년 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과거사 사과와 수용을 통해 관계를 진전시킨 일이 있었으나, 최근 과거사는 다시 논점이 됐고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 특히 그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욱 정직하게 역사를 바라보는 책임과 이익은 한 나라를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며 “미국사에 노예제나 인디언 원주민에 대한 대우 등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역사를 더욱 잘 마주해 논쟁하고 그것을 공론화하며 숨기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음.
- 미국, 러시아와 양자협상 계속하는 일본에 쓴 소리(10/10, 연합뉴스)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러-일 간 평화조약 협상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러시아와 협상을 할 시기가 아니란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일본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였음.

- 커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적 고려 사항”이라면서 “시리아 사태가 언론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그곳에서 러시아가 하는 일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힘.
- 커비 대변인의 발언은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시리아 사태 군사 개입에 대한 서방의 비판적 입장을 무시하고 대러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 협상을 계속하는 데 대한 미국의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보임.

사. 미·러 관계

- 미국, 러시아와 갈등 속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지원(10/5, 연합뉴스)
 - 시리아 사태 등을 놓고 러시아와 대립하는 미국이 친러시아 반군에 맞선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새 무기를 지원한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 방송 인터뷰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원에 대한 약속을 얻었음. 포로셴코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최근 뉴욕에 있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과 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만난 후 등 세 차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음.
 -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무기는 친러시아 반군 측의 포격 및 다연장 로켓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Q36 레이더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러시아, 시리아내 IS 공습작전 조율 미국 제안 수용(10/7, 연합뉴스)
 - 시리아 내 공습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가 현지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 격퇴전 활동을 조율하자는 미국 측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힘.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이고리 코나셴코프 소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리아 내 IS 격퇴를 위한 군사작전의 틀 내에서 양국의 활동을 조율하자는 미국 측 제안을 신속히 검토했다.”면서 “이 제안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이와 관련,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앞서 시리아 내 IS 격퇴전 과정에서 러시아와 미국 간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상에 터키를 참여시킬 수도 있다고 전했음.

- 미국-러시아, 시리아 IS 기지 공습 작전 조율 실패(10/8, 연합뉴스)
 - 시리아 내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작전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을 성사시키는 데 실패하였음.
 - 러시아가 현지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IS 근거지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음. 미국은 러시아 공군기들이 IS 기지 이외에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과 맞서 싸우는 온건 반군 기지 등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는 한 러시아와 어떤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이고리 코나셴코프 소장은 7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리아 내 IS 격퇴를 위한 군사작전의 틀 내에서 양국의 활동을 조율하자는 미국 측 제안을 신속히 검토했다.”면서 “이 제안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가 스스로의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시리아 내 군사작전과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미 관리, 시리아 겨냥 러시아 미사일 4발 이란에 떨어져(10/9, 연합뉴스)
 - 러시아가 카스피해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이란 영토에 떨어졌다고 미국 CNN이 8일(이하 현지시간) 복수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음.
 - CNN은 시리아를 겨냥한 적어도 4발의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이란 영토에 떨어졌다고 하며 이들 미사일은 러시아가 최근 개발한 ‘칼리브르’로, 실전에서 사용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타스통신을 통해 발표한 이고르 코나셴코프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군사) 분야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은 공격 전과 후의 목표 영상을 확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 군함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모두 목표에 명중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30분 이상 전화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속하지 않은 집단을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해 러시아 측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힘.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이란에 떨어졌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짐.

- 미국-러시아, “시리아 공습시 충돌 피하자” 군사회담 재개(10/10, 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전투기가 시리아를 공습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이 보도함.
 -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리아 영공에서 양국 전투기들이 충돌을 피하는 방안을 러시아 측과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주말 중에 대화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앞서 양국 국방부는 지난 1일 화상회의를 열고 양측 전투기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 등 시리아 영공에서의 안전 문제를 논의해왔음. 미국은 당시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구조신호를 보낼 때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지는 내용 등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대한 러시아의 공식 답변이 없으면 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 러시아, 시리아서 공습 강화…미·러 항공안전 논의 ‘진전’(10/11, 연합뉴스)
 - 러시아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한층 격화하고 있는 시리아에서 정부군이 러시아의 공습 지원에 힘입어 일부 지역을 탈환하였음. 또한, 러시아의 공습이 잦아지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상공에서 우발적인 전투기 충돌을 막기 위한 항공안전 논의를 재개해 다소 진전을 이뤘다고 알려짐.
 -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이 90분간 화상회의를 열어 시리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러 전투기들 사이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운항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도 “전문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양국이 시리아 영공의 항공 안전을 위한 잠재적 합의안을 놓고 협상에 진전을 이뤘다.”고 밝힘.

아. 중·일 관계

- 日집권당 총무회장 방중 추진…중일관계 개선 모색(10/5, 연합뉴스)
 -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집권 자민당 총무회장이 이달 하순 중국을 방문한다고 NHK가 5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니카이 회장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양국 문화교류 행사에 맞춰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며 이번에 니카이

- 회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현안에 관한 대화를 나눌지 주목됨.
- 한편,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13~16일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임. 관측통들은 이를 두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고려한 포석이라고 풀이하고 있음.
- 일본, TPP로 '수출촉진·중국견제' 두 마리 토끼 노린다(10/6, 연합뉴스)
 -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경제와 안보, 특히 수출 촉진과 중국 견제에서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음. 세계 경제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최대규모 무역공동체 탄생은 일본의 자동차 등 수출에 순풍이 되는 한편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맞설 강력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게 일본의 기대임.
 - 이에 대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새 동력을 찾던 아베 정권도 크게 환영하고 있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6일 회견에서 "TPP는 기회를 가져 올 것"이며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일본은 또 AIIB를 통해 국제경제 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TPP의 '부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아베 총리가 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이 주도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에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일본의 의중을 보여줌.
 - 중국서 간첩혐의 구속 日남성, 군사시설 대량 촬영(10/7, 연합뉴스)
 - 최근 중국 당국에 간첩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 가운데 아이치(愛知)현 출신 50세 전후의 남성은 저장(浙江)성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 7일 중국 관찰자망(觀察者網)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5월 구속되기 전 저장성 원저우(溫州)시 평양(平陽)현 소재 난지(南기<鹿 아래 점 없는 凡>) 열도의 군사시설 주변에서 대량의 사진을 찍다가 체포되었음.
 - 이 남성은 중국 인력파견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일로 저장성에 자주 드나들면서 '군사 애호가'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 촬영한 것일 뿐이라고 중국 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짐. 관찰자망은 "작년 일본 매체들이 난지열도 군사시설 건설 소식을 전하며 '최첨단 레이더장비가 설치됐고 헬기장이 건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용기 활주로가 건설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 中日, 우발적 충돌 방지용 '핫라인' 개통 논의 중단(10/8,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긴급 연락시스템) 개통 논의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관련 이견으로 중단 됐다는 보도가 나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영해와 영공을 핫라인 등 연락메커니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해 논의가 중단됐다고 8일 보도함.
 - 양국 군, 해안경비대 간 핫라인과 정기적인 협의를 포함한 연락 메커니즘 가동 논의는 2007년 처음 시작됐지만,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선언 이후 중단되었음.
 - 그러나 작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논의가 재개돼 올여름 연락메커니즘이 가동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다시 중단되었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국 간 견해차가 커 연락메커니즘 논의가 단기간에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中연구기관, 일본 핵무기 1천350개 만들 플루토늄 보유(10/10, 연합뉴스)
 - 일본이 현재 핵무기 1천350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일본 내에 보유하고 있다고 중국 연구기관이 주장함. 중국 군축협회와 원자력과학 기술정보 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플루토늄, 우라늄 등 핵물질 보유 현황, 생산능력, 실제수요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망(新華網)이 10일 보도했음.
 - 보고서는 일본의 플루토늄 수급이 장기간에 걸쳐 불균형 상태로 현재 핵 폐기물이 분리된 플루토늄 47.8t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중 핵탄두 1천350개의 제조가 가능한 10.8t은 일본 국내에 보관돼 있다고 서술함. 또한, 나머지는 영국, 프랑스 등에 재처리를 위탁해 놓고 있다고 서술함.
 - 주쉬후이(諸旭輝) 중국군축협회 수석고문은 “일본의 지난 40여 년간 원전 운영 과정에서 사용한 핵연료 중 농축우라늄은 9%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일본이 대규모 자금을 들이고 있는 데에는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함.

-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 다음주 방일...한중일 정상회담 준비(10/10, 연합뉴스)
 -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10일 밝힘.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양제츠 국무위원이 이번 달 말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준비 작업을 위해 다음 주 일본에서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함.
 -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 주도로 이달 31일이나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으로, 교도통신은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아베 총리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리 총리와 아베 총리의 양자 회담도 개최된다고 전하였음.
- **日, ‘난징’ 세계유산등재에 ‘격양’…中, ‘역사카드’ 확보한 격(10/10, 연합뉴스)**
 - 난징(南京) 대학살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결정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는 ‘중국에 역사카드로 역습을 허용했다’는 경계심이 감지되고 있음.
 - 일본 외무성은 등재를 미리 예상한 듯 10일 새벽(일본 시간) 결정이 나자마자 준비했던 대변인 담화를 발표함. 담화는 “(자료의) 완전성과 진정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이것이 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중립적이고 공평해야 할 국제기구로서 문제가 되는 일이지 극도로 유감스럽다.”고 밝힘.
 - 결국 중일 간 치열한 외교전 속에 난징학살 자료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일본은 중국의 역사 공세를 경계할 전망이다.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를 주된 명분 삼아 집단 자위권을 손에 넣은 아베 정권으로선 중국이 난징학살 기록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침략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식의 공세를 펼 것을 우려할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 ‘난징 자료’ 세계유산등재 “극도로 유감”…중국에 항의(10/10,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난징(南京) 대학살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극도로 유감”이라고 밝히고 중국 정부에 항의함.
 - 가와무라 야스히사(川村泰久)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 안건은 일중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음에도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신청된 것이며, 완전성과 진정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밝힘. 그는 “이것이 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중립적이고 공평해야 할 국제기구로서 문제가 되는 일이지 극도로 유감스럽다.”고 강조함.
 - ‘견해 차이’는 주로 난징 대학살의 중국인 희생자 수에 대한 것으로 풀이됨. 중국은 ‘3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30만 명은

과장됐다’는 인식 아래 “여러 설이 있어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답화는 또 “유네스코의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임.

- 日 여성 중국서 스파이 단속기관에 구속…일본인 4명째(10/11, 연합뉴스)
 - 일본인의 중국 내 스파이 활동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까지 중국에서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이 4명으로 늘어남.
 - 교도통신은 11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올해 6월 50대 일본인 여성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의해 구속됐다고 보도함. 이에 앞서 스파이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남성 3명이 올해 5·6월 중국에서 각각 구속된 것으로 알려짐.
 - 이 여성이 어떤 혐의로 구속됐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국외 정보 수집을 하거나 중국 내 스파이 활동을 감시·단속하는 국가안전부가 체포한 점에 비춰볼 때 중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스파이 혐의로 붙잡혔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어린이 강제노동 동영상 워싱턴서 공개·국무부 “북한 고아 입양 어려워”(10/8, 미국의소리)
 - 워싱턴을 찾은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가 지인에게 최근 촬영한 북한 내 동영상을 소개했음.
 - 지난 겨울부터 불과 한 달 여 전까지 촬영한 동영상에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듣던 어린이 강제 노동과 최근의 활발한 장마당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음.
 - 탄광에서 석탄을 나르는가 하면 골목 메뚜기 시장에서 미나리를 팔고 있는 어린이들도 보임.
 - 겨울 빨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끌고 가는 아이들, 불과 두 달 전 쓰레기장에서 먹을 것을 찾는 꽃제비 아이들의 모습도 선명함.
 - 김 목사는 특히 북한 내 동역자들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활상을 집중적으로 담았으며 어린이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 노동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음.
 - 김 목사는 그러나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국제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호 노력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워싱턴에서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김 제1위원장의 원산 육아원과 애육원 완공식 참석 소식을 전하며 어린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지극하다고 강조했음.
 - 북한은 국제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 어린이를 왕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있고 지난해 11월에는 유엔의 권고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기도 했음.
 - 하지만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유엔기구들은 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만성적 식량난에 따른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 받은 북한 어린이 수가 2013년에 비해 38%나 증가했다고 밝혀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음.
 - 미국은 지난 2012년 의회가 만장일치로 북한 어린이 복지 법안을 채택한 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1월 법안에 서명했음.
 - 이 법은 미 국무장관이 담당자를 정해 북한 어린이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 고아들의 미국 가정 입양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러 법적, 재정적, 환경적 걸림돌 때문에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임.

- 미 국무부 관리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어 북한인(고아)들을 미국으로 입양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으며 국무부는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때 마다 보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 FAO “북, 올해 쌀 생산량 또 감소”(10/8, 자유아시아방송)

- FAO는 6개월마다 발표하는 ‘식량전망보고서(Food Outlook)’를 8일 발표하고, 올 가을 북한의 쌀 수확량을 150만 톤으로 전망했음.
- 북한의 쌀 수확량은 2011년에서 2013년의 평균 쌀 수확량인 180만 톤을 유지했고, 작년에는 170만 톤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다시 150만 톤으로 20만 톤 더 감소해, 식량난 악화를 예고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이 올해 생산할 옥수수는 약 220만 톤으로, 지난해 260만 톤보다 40만 톤 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음.
- 즉, 올해 북한의 주요 곡물인 쌀과 옥수수 생산량은 가뭄 등 이상 기후로 지난해에 비해 총 60만 톤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
- 이러한 생산량 부족으로, FAO는 내년도 북한 주민 1인당 쌀 소비량을 67kg로, 옥수수의 경우 80kg으로 추정했음.
- 북한 주민 한 사람이 일 년 동안 소비할 쌀과 옥수수를 합하면 약 147kg으로 유엔의 권장 소비량의 절반 수준인 셈임.
- 따라서 FAO는 내년 북한이 쌀 30만 톤, 옥수수 20만 톤을 수입해 총 420만 톤의 식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한편, FAO는 북한이 내년 여름까지 확보할 돼지고기를 약 11만 7천 톤으로 전망하고, 조사대상 아시아 10개국 중 가장 적은 양이라고 밝혔음.
- 이는 북한의 축사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도축해서 생산할 11만 4천 톤에 수입으로 확보할 3천 톤을 더한 양임.
- 1995년 11만 5천 톤이었던 북한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7년 약 17만 톤 생산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생산은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인 11만 6천 톤에 그쳤음.

- “북, 여성이 가장 심한 노동 도말야”(10/8, 자유아시아방송)
 - 익명을 요구한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 출신 인사는 한 여성이 양 어깨에 커다란 나뭇짐을 메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 북한에서의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밝혔다.
 - 이 외교관은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는 길에서 이 여성이 나뭇짐을 메고 힘겨워하며 소리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News(Memories of Pyongyang: Citizens and Expats Reminisce about North Korea Life)는 최근 평양 거주 경험이 있는 외국인과 평양 시민 등 7명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조사에서 이 외교관은 교외로 나갈 때마다 북한 여성이 가장 혹독한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 평양이나 외곽에서 추운 겨울 아침 여성들이 쭈그리고 모여 앉아 맨손으로 혹은 조그마한 도구를 들고 얼어붙은 길에서 얼음을 깨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고 그는 강조했다.
 - 그러나 남성들은 옆에 선 채 담배를 피우면서 마치 여성들이 노예와 같이 일하는 것을 감독하는 모양새였다고 그는 지적했다.
 - 그는 또 여성들이 무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큰 길에서 몇 시간씩 먼지를 쓸거나 시골 아낙들이 무거운 짐을 자전거 뒤에 실어 나르는 모습도 종종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 2004년 탈북한 영국의 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는 북한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하찮은 존재라는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은 일본 식민치하에서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7월 30일 ‘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됐다고 주장했으며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했다.
 - 박 간사는 그러나 장마당에 나가 번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편 겨울철에는 얼음을 깨 빨래를 하고, 장작을 패 밥을 짓는 등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은 ‘인권’의 개념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북, 불법영상물 단속 대폭 강화(10/9,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요즘 들어 109 상무가 거의 매일 집에 들이닥쳐 온 집안을 이 잡듯이 뒤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음.
 - “이불장과 옷장, 부엌 등은 물론 마당에 있는 개집까지 뒤지고 있다”고 전한 소식통은 “109상무 단속반이 들이닥치는 시간도 한낮이건 한밤중이건 시간을 가리지 않으며 집안에 들어올 때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구둑발로 들어와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말했음.
 - 소식통은 그러면서 “요즘엔 보안당국에서 수시로 남조선 CD 알판이나 메모리(USB)를 가지고 있다가 단속에 걸릴 경우 정치범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음.
 - 과거에는 불법영상물 단속에 걸려도 정도에 따라 노동단련대 처벌이나 심할 경우 2~3년 정도의 노동교화소형에 처해지는 정도였지만,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최고 사형까지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 소식통은 이어서 “아랫동네(남한) 영상물은 물론이고 중국 영상물도 일단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량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09 상무는 인민보안부 소속이지만 불법영상물 시청 또는 소지죄로 체포되면 즉시 보위부로 넘겨져 심문을 받게 된다”면서 “보위부의 취조와 심문은 인민보안부의 그것과는 그 강도나 잔혹함에서 비교할 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 이 소식통은 “일단 109 상무가 집에 들이 닥치면 주민들은 남조선 영상물이 집안에 없더라도 다른 문제를 걸고 들까 봐 말 못할 정도의 공포감을 갖게 된다”면서 “요즘엔 목란비디오에서 만든 CD 알판까지 몽땅 수거해 조사를 한 뒤 다시 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 2005년 비사회주의그루빠 척결을 명분으로 외부영상물 단속 전담조직으로 결성된 109 상무는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조직이 갈수록 비대해져 외부영상물을 즐기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음.

- 당 창건 70주년 특별공급에 '기름 한 병'(10/1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지방의 북한 주민에게 매우

열악한 ‘특별공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일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함경북도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특별공급으로 기름 한 병과 과자 조금 받은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선보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치적을 선전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특별공급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북한 주민의 실망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당국은 최근 2~3년 새 지방에는 특별공급을 하지 않거나 매우 초라하게 공급했으며 지난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과 음력설에도 기대와 달리 아무런 명절공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 북한인권

- 억류 대학생 주원문씨 송환 “북한, 인권 중시 보여주기 의도”(10/5, 서울경제)
 -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21)씨를 5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음.
 - 주씨는 지난 4월22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에 입국하려다 붙잡힌 미국 영주권자임.
 -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송환 의사를 밝혔고 통일부는 이를 수용했음.
 -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송환 요청을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및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자신들도 인권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권 침해가 전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북한의 주씨 송환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남북은 이날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의 생사 확인 결과를 교환하는 등 오는 20~26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임.

- 통일부는 “북한이 이제라도 우리 국민 주씨를 송환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아직까지 북측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정욱·김국기·최춘길씨도 조속히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북한 주민 인권침해로 고통”(10/6, 연합뉴스)

-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이 여전히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다르스만 특별보고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음.
- 그는 특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해외 노동자, 장애인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한편, 강제납치 피해자들과 후손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전화와 이메일 이용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르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그는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응책을 이번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 반인도 정책 개발과 이행에 책임이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 등에 대한 분석표 작성도 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 그는 또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난민이 본국에 송환돼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보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망명을 모색하거나 통과를 원하는 모든 탈북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그는 이어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강제노동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다르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 인권상황 실태를 오는 29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설명할 예정임.

- 유럽 탈북자단체, 브뤼셀서 북한인권 실태 폭로 사진전(10/8, 연합뉴스)
 - 유럽의 탈북자 단체인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유럽총연)는 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한 인권실태를 폭로하고 북한 노동당창건 70주년(10월10일) 행사를 비판하는 사진전을 개최했음.
 - 이날 저녁 제1회 브뤼셀 한국음악 페스티벌이 열린 보자르 공연장 앞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 및 홍보 행사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고문·폭행 등 인권침해 실상을 고발하는 사진과 만화 등 50여점이 전시됐음.
 - 또한 유럽총연 회원들은 현지인들에게 북한 인권 관련 책자와 성명서도 배포했음.
 - 유럽총연은 성명서에서 한국과 유럽의 문화 및 경제교류와 극명히 대조되는 북한의 폐쇄적 사회, 인권탄압, 낮은 삶의 질을 고발했음.
 - 성명서를 본 벨기에인들은 북한이 도발과 인권탄압을 중지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고 유럽총연이 전했다.
 - 장만석 유럽총연 회장은 “북한은 당 창건 기념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인권탄압을 사죄하면서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제인권단체 “북한, 주민 강제노동 중단하라”(10/9, 연합뉴스)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의 강제노동을 비판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음.
 -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8일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은 조직적이고 만연한 강제 노역을 통해 주민을 통제하고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주민 착취에 기반을 둔 북한의 억압적인 경제체도를 종식하도록 즉각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진정으로 축하하려면 자국민의 노동을 착취하는 약탈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평생 어느 시점에서든지 힘들고 험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은 강제노동 때문에 성장 결핍 등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3. 탈북자

- “지난 1년 미 입국 탈북자 15명”(10/6,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는 올 8월에 이어 9월에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한 명도 없다고 6일 발표했다.
 - 이로써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015 회계연도에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 월별로 보면 작년 11월에 5명, 12월에 2명, 올 1월에 1명, 5월에 2명, 6월에 1명, 7월에 4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음.
 - 작년 10월과 올 2월, 3월, 4월, 8월 그리고 9월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한 명도 없었음.
 - 탈북자들은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년 이후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고 있음.
 - 2006 회계연도에 9명의 탈북 난민이 처음 미국에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2007 회계연도에 22명, 2008 회계연도에는 37명, 2009 회계연도에는 25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음.
 - 그 후 2010 회계연도에 8명으로 감소했던 미국 입국 탈북자 수는 2011 회계연도에 23명으로 늘었고, 이후 매년 20명 안팎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정착했음.
 - 그러나 2014 회계연도에 미국 입국 탈북 난민의 수는 다시 8명으로 감소했고 이번 2015 회계연도에는 다소 늘어나 15명이 미국에 입국했음.
 - 이로써 2006년 이후 2015 회계연도까지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총 186명으로 집계됐다.

- 스웨덴, 추방위기 탈북소년 난민인정(10/7, 자유아시아방송)
 - 함경북도 꽃제비 출신이라며 2013년 봄 스웨덴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심사 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추방당할 뻔 했던 한 탈북자가 스웨덴에 영구 정착해 요리사로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음.
 - 익명을 요구한 이 탈북자의 변호를 맡아온 스웨덴인 아리도 데가브로(Arido Degavro) 변호사는 이전 그가 북한 이외의 모든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스웨덴 이민국의 프레드릭 벵슨(Frederik Bengtsson) 공보국장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
 - 스웨덴 이민국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 탈북자는 스웨덴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스톡홀름에서 전문요리사 훈련기관에 다니며 요리사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음.
 - 이 탈북자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도착 후 난민지위를 받기까지 그를 물심양면 도와준 데가브로 변호사 등 국제사회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음.
 - 데가브로 변호사는 그가 탈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도움을 준 북한정의연대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한국의 인권단체의 도움이 컸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 탈북자에 관한 국제사회의 언론 보도를 북한 당국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그가 북송될 경우 처형까지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스웨덴 이민국이 난민지위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 꽃제비 출신 미성년자로 중국을 거쳐 스웨덴에 도착했던 이 탈북자는 이민국 난민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조선측으로 추정된 스웨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바 있음.
- “탈북자 국내 정착 프로그램 만들겠다”(10/9, 중앙일보)
- 연방 보수당이 탈북자 국내 정착 프로그램 창설을 공약하며 탈북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천명했지만 민간단체 주도형식으로 마련된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제이슨 케니 국방-다문화 장관은 7일 월로테일 지역구의 천생룡 연방의원 선거 사무실에서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음.
 - 이 자리에서 케니 장관은 스티븐 하퍼 총리가 4차례 방한한 사실을 언급하며 “역대 총리 방한 횟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하퍼 총리는 일본 아베 총리의 위안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며 “한국과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으며 향후 양국 관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했다.
 - 케니 장관은 이어 “이제 양국의 관계는 한발 더 진전할 것”이라며 “북한에서는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제 수용소가 있다.

이들을 수용할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보수당 집권시 특별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을 개설 공약을 표명했음.

- 이 정책 시행시 교회나 탈북자단체 등 지정된 민간기구에서 탈북자들 소득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맡고 연방정부는 OHIP등 보건과 언어나 직업교육 등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임.
- 민간기구에서 부담해야할 재정규모를 묻는 본보 기자 질문에 케니 장관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연 1만 8천불 정도 규모로 예상한다”고 답했음.
- 케니 장관은 국가주도의 탈북자 수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 “현행 법률상 난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출생국을 이탈한 자 중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다.”며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봐야하고 엄밀히 말하면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이런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음.
- 모국 헌법 3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거하면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분류됨.
- 한국정부와의 협의가 된 사항이나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케니 장관은 “한국정부와 협의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캐나다 정부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것을 유엔과 한국정부에 밝히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에서 한국정부를 돕기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한국정부 의사도 중요하다”고 응답했음.
-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탈북자 가운데 동남아시아에 체류 중인 망명 대상자는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보안, 범죄, 보건, 출신배경 등의 검토 절차 후 민간 스폰서를 받아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게 됨.
-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에서 부담해야할 재정부담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탈북자 정착 지원에 있어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시각 또한 존재함.

■ 캐나다 올해 탈북 난민 수용 '0'(10/9, 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의 공보 담당관은 최신 난민입국자통계(Claims Referred and Finalized)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한 탈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음.

-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70명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신청 서류를 심사했음.
- 이 중 26명은 거부당했고, 21명은 이민국에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23명은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음.
- 캐나다 정부의 탈북 난민 수용률은 2012년 10명 중 8명으로 가장 높았는데, 282건을 심사해 22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기 때문임.
- 그러나 2013년 캐나다 정부의 난민 수용률은 8퍼센트로 급격히 감소해 100명 중 8명에 불과한 수용률임.
- 한국에 정착한 후 다시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탈북자 이른바 '위장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임.
-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자 수는 473명임.
- 캐나다 정부는 2007년 처음 한 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후 이듬해 7명, 2009년 64명, 2010년 42명에게 난민 지위를 주고 2011년 100여 명(115명)을 난민으로 수용했음.
-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와 한보이스 등 인권단체들은 캐나다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난민 심사를 해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도록 촉구해 왔음.
-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캐나다 제이슨 케니 국방부 장관 겸 다문화부 장관이 오는 19일 있을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재집권할 경우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발이 묶인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됨.

4. 이산가족

- 남북, 이산상봉 최종 100명 명단 교환 예정(10/8, 데일리NK)
 - 남북한 당국이 8일 이산가족 상봉자 100명의 최종명단을 교환함.
 -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와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이날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최종 상봉대상자 명단을 교환할 예정임.
 - 통일부와 현대아산 기술자 등 50~60명으로 구성된 금강산 시설 개보수 인력은

북한 금강산지역에서 상봉행사를 준비하고 있음.

- 이어 우리정부는 15일부터 19일까지 금강산 현지에 선발대를 파견해 북측과 세부일정을 조율함.
- 이산가족들은 상봉 1일 전인 19일 국내 집결지에 도착해 방북 안내교육을 받고 필요시 건강검진도 받음.
- 상봉자들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등지에서 단체상봉·개별상봉·작별상봉·환영만찬 등의 행사를 가지며, 1차 상봉단은 20~22일, 2차 상봉단은 24~26일 각각 가족을 만나는 일정을 시행함.

5. 남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영 NGO “북 수재민에 텐트 지원”(10/6, 자유아시아방송)
 - 쉘터박스의 앤드류 에번스 국장은 북한에서 올 여름 홍수와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오는 12월 라선에 텐트 500개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 기구는 이 밖에도 난로 500개, 그리고 담요, 태양 전등, 물통 등 생필품이 들어간 쉘터박스 구호상자 500개도 지원된다고 전했다.
 - 이번 지원의 분배를 위해 쉘터박스 직원 2명이 지원 대상 지역인 라선에 약 10일간 파견될 예정임.
 - 이들은 한국의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나선 지역 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재민들에게 구호품을 분배하고 피해 현장을 실사할 예정임.
 - 쉘터박스의 이번 지원 총 예산은 미화로 6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에번스 국장은 “이번 방북 시 텐트를 분배하면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쉘터 박스는 지난 9월 “북한 당국이 영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수해 복구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전한 바 있음.

- 셸터박스는 2007년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 수재민에게 텐트가 포함된 구호상자 200개를 전달하며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했음.

■ “러, 대북 지원으로 영향력 증대 노려”(10/7,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외교협회의 스테반 블랭크 러시아 전문 선임 연구원은 7일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에 기고한 글을 통해 “러시아가 계속해서 한반도 위협에 대해 미국과 북한 간의 간극을 이용해 지역 내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갈 것”이라고 내다봤음.
- 그는 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북한을 고립시키려 할 때, 러시아는 이를 이용해 북한이 자신에게 기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음.
-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 연구소 한국학 소장도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의 발전은 북한이 러시아의 국제적 또는 대 아시아 영향력 증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 즉, 미국, 한국 등 6자회담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을 내밀 것이며,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 간 관계가 점점 소원해진 틈을 타 북한에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며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는 설명임.
- 하지만 블랭크 선임연구원은 결국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북한이 고위 관리들을 대거 숙청하는 등 예상치 못한 폭력적인 기이한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롯한 그 어느 국가도 북한의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상태로부터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임.
- 블랭크 선임연구원은 또 러시아의 극동아시아지역에 대한 해외 원조 개발과 같은 중요한 정책적 계획들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음.
- 그는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 철도, 가스 등 기반 시설을 통해 핵 야망을 가진 북한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 주는 동시에 남한에게도 에너지 공급원이 되려 하고 있다고 밝혔음.
- 즉,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설명임.

- 유엔, 북 수해에 1만 4천 대피처 지원(10/9,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8일 북한의 홍수 피해와 지원 상황 집계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올해 수해 지원용으로 총 긴급 보건 세트 1만 1천개, 고열량 비스킷(high energy biscuit) 약 1만 1천 100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뿐만 아니라 “북한 수재민 2만 4천명에게 물과 위생용품을 분배했으며, 비상 사태 대피처(emergency shelter)와 비식량 구호품 1만 4천 400여개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 이번에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에 참여한 유엔 기구들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임.
 - 지역별 홍수 피해 상황으로는, 함경북도에서는 나선 시에서 가장 많은 5천 399가구가 수해를 입었으며, 약 200-300가구씩 피해를 본 지역들이 있었으며, 황해남도에서도 최대 200가구가 홍수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 이어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남도에서 각각 10가구 미만이 홍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 또 유엔의 북한 올해 홍수 피해의 총 집계를 보면, 수재민은 총 2만 2천여명이 발생했고, 6천여 가옥이 파괴되거나 파손됐으며, 4천 헥타르의 농경지가 유실됐음.
 - 유엔은 수해 지역 북한 주민 대부분이 공공시설이나 임시시설에 대피해 머물고 있었으며, 음식과 식수뿐만 아니라 위생시설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8. 북한동향

- 특이동향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